

# 在滿詩人·詩作品 研究(Ⅱ)\*

— 李旭의 詩를 중심으로 —

조 규 익\*\*

## 目 次

I. 서 론	1. 짜임의 문제
II. 장르의식	2. 이미지
III. 작품적 특질	IV. 결 론

## I. 서 론

송철리의 시를 발굴하여 발표한 전고<sup>1)</sup>에 이어 본고에서는 이욱의 시를 분석하고자 한다. 1907년 블라디보스톡의 고려촌에서 태어난 그의 일생은 빈궁과 유랑의 연속이었다. 말하자면 그의 시작품 곳곳에 반영되어 있는 실향의식을 그는 이미 유년기부터 경험하였던 셈이다. 漢學者였던 조부에게서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고, 그런 연유로 여러 수의 한시까지 남길 수 있었다. 이러한 한시의 소양과 새롭게 대두된 사회주의적 사조는 그의 시작에 모종의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말하자

---

\* 1992년도 대성그룹 지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논문임.

\*\*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1) 在滿詩人·詩作品 研究(Ⅰ) —宋鐵利의 詩를 중심으로—, 『崇實語文』 8, 송실어문연구회, 1991.

면 그가 체험적으로 갖게 된 유랑(혹은 실향)의식과 함께 한시의 문학적 틀, 진보적 사회주의 이념 등은 그의 문학세계를 지탱하여 준 세 支柱였다고 본다.

그는 많은 작품과 작품집들을 펴냈는데, 1924년에 발표한 <생명의 禮物>을 그의 처녀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 후 일제 시대 내내 투쟁적 정서를 기반으로 한 서정시와 삶에 대한 통시적 서술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적 서정시 등을 왕성하게 발표하였고, 해방 후에는 사회주의적 관점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들을 비교적 많이 창작하였다. 『복두성』<sup>2)</sup>, 『북류의 서정』<sup>3)</sup>, 『고향사람들』<sup>4)</sup>, 『연변의 노래』<sup>5)</sup>, 『장백산하』<sup>6)</sup>, 『리옥시선집』<sup>7)</sup>, 『풍운기(상)』<sup>8)</sup> 등의 시집들을 출판하였다. 이 가운데 『연변의 노래』, 『장백산하』 등은 한문시이며, 『연변의 노래』는 서정서사시로 『풍운기(상)』은 장편서사시로 각각 간주되고 있다.

이옥의 詩史的 位相에 비해 그의 시에 대한 연구는 별반 없는 셈이다.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전국권의 「리옥론」<sup>9)</sup>과 권철의 「민족의 시인 리옥과 그의 해방전 시」<sup>10)</sup>, 「리옥」<sup>11)</sup> 등을 들 수 있는데 모두 연변지역 학자들에 의한 연구 성과들이다.

전국권은 이옥이 1920~30년대로부터 중국고대의 문학 특히 李白과 곽말약, 서양의 바이론과 쉘러, 휘트만 등의 시작품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모순적인 사회 환경의 충격 등으로 낭만적 시풍을 갖게 되었다는 점과 그가 상징법과 인상법을 사용하여 형상성이 강한 작품들을 지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권철은 민족적 색채가 강한 점, 해방 전에 지은 시들의 경우 민족적 미래지향의식과 낭만주의적 색

2) 연길시직공인쇄공장, 1947.

3) 민중문화사, 1949.

4) 민족출판사, 1957.

5) 작가출판사, 1957.

6) 작가출판사, 1957.

7) 연변인민출판사, 1980.

8) 료녕인민출판사, 1982.

9) 임범송·권철 주필, 『조선족문학연구』, 후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9, pp.247~266.

10) 『조선학연구』 제2권, 연변대학출판사, pp.118~134.

11) 조성일·권철 주필, 『중국조선족문학사』, 연변인민출판사, 1990.

체가 진한 점, 상징주의적이며 은유적인 수법들을 재치있게 사용한 점 등을 이옥시의 주된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타당함을 인정하면서 그의 시편들에서 나타나는 장르적 성향이나 짜임, 주제의식, 이미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Ⅱ. 장르의식

이옥은 어렸을 때부터 한시를 접했으므로 그는 한시로부터 시의 장르적 규범과 기교를 배웠을 가능성이 있다. 시작품들의 기반을 형성하는 서정성의 근원도 따지고 보면 한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창작한 것으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한시는 6수(한 작품은 4부분으로 된 연시)에 달한다.<sup>12)</sup>

臥龍山色從雲遠    와룡산색은 구름따라 멀고  
豆滿江聲隨風高    두만강 물소리는 바람따라 높구나  
〈臥龍山〉

이 작품은 和龍縣 江長洞書堂에서 13세때 지은 것이라 한다.<sup>13)</sup> 정확한 대구와 소재 선택의 자연스러움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작품 속의 ‘山色’과 ‘江聲’은 어린 시인의 범상치 않은 서정적 심미안을 입증한다. 생활 주변의 소재들을 동원한 후일의 성공작들도 이런 성향의 서정적 형상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에 이와 같은 서정적 성향만 일방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에 못지 않게 서사적 성향도 드러나고 있다. 서정과 서사에 대한 관점이나 개념 규정이 다양함을 감안한다면 이옥의 시에서 어떤 부분이 서정적인 것이고 서사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한 시점과 주관적이고 직접적인 심정의 움직임을 표출하는 것이 서정이고 객관적인 사건의 시간적 재현에

12) 〈臥龍山〉·〈暮春〉(二首)·〈登仙境臺〉·〈夕陽〉·〈漁翁〉 등이다.

13) 권철교수의 기록에 의거함. 이하 인용되는 이옥의 해방전 시 작품들과 말미의 부록 작품들은 주로 권철교수가 발굴, 수집하여 필자에게 제공한 것들이다.

중점을 두는것이 서사라면 양자간의 대체적인 구분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그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통의 체험을 서사적인 태도로 노래하고 있다. 이념이나 투쟁, 즉 삶의 문제들은 문학 속에서 서술되어야 할 현실적 체험이었다. 이와 함께 신화적 모티브 혹은 향토적 정서의 外皮를 쓰고 등장한, 옛날 이야기의 설화적 체험도 서사적인 양상으로 부각되어 있다. 원래 서사시의 출발이 구비문학으로서 존재했던 것임을 감안한다면, 소재로서의 설화가 조성하는 서사적 분위기도 표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의 시 속에 들어 있는 이런 요소는 異域에서 늘 느껴야만 했던 그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 혹은 자기동일성 확보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시에서 서사적 성향을 드러낸 요인은 실향민(유랑민)으로서 겪은 쓰라린 체험이었다.

① (前 略)

六? 큰 凶年에 餓殍가 길가에 어즈러이 쓰러져  
 移住民이 셋섬어로 낫과 호미 그리고 쪽박을 들고  
 밤새 숨어서 건널때  
 그리고 가엾은 屍體 물거품에 떠돌때  
 너 얼마나 嗚咽하였는나?

庚戌 슬쓸한 八月바람에  
 옛 섬들에 피눈물 뿌린뒤  
 거룩한 뜻을 품고 떠난 愛國志士들을  
 네 목을 축이어 업어건널때  
 너는 정녕 울었으리라

(後 略)

- <豆滿江에 묻노라>에서 -

② 룩순, 칠순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는  
 역시 그들의 룩순, 칠순 할아버지 할머니적 이야기였다.

아득한 그 시절 푸른 하늘에 별이 총총하던 밤  
 이야기는 세월처럼, 기나긴 이야기는  
 재밌재밌하기도 하였지만

무시무시하기도 하였다.

기사년에 특진에 큰 흉년이 들어서  
남너로소 샛섬을 건너는적  
도문강은 주검을 싣고 목이 매였느니라는...  
이깔나무에 까마귀 울었느니라는...

〈후 략〉

- 〈옛말〉에서 -

③장백산 항일유격대에  
날고뛰는 장수가 있어서  
때론 산을 뛰어넘고  
때론 하늘로 날아올랐느니라.

천년고목을 기둥으로 세우고  
백척벼랑을 벽으로 대어  
허허 공중에 천막을 치고  
바람과 비를 물리쳤느니라.

해와 달이 질줄모르는 천막에서  
장수는 다함없는 청춘을 빛내며  
천하의 영웅과 용사를 모아  
천하대사를 의논했느니라.

〈후 략〉

- 〈장백산의 전설〉에서 -

③은 서사시라고 할 수 있겠으나 나머지는 서사성이 짙은 서정시들이다. 하나의 시 작품에서 서사성과 서정성이 복합되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고 흔한 일이겠으나 이육을 비롯한 재만시인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서정이나 서사 가운데 어느 한쪽만으로는 그들의 표현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장르적 미분화 상태를 부정적 측면에서는 농축된 시 정신의 결여로 볼 수도 있겠으나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표현 및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의 소산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의 작품 속에서 서정적인 것, 서사적인 것, 혹은 극

적인 것 중 어느 하나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들에 비해 뚜렷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밖의 다른 것이 결여되지는 않는다고 말한 슈타이거의 견해<sup>14)</sup>를 원용한다면 이옥의 시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장르적 성향의 공존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①과 ②는 기근과 망국의 시기에 이민족이 공통적으로 겪어야 했던 참상을 現存化한 대목이다. 서정시인이 과거의 일을 돌이켜 느끼는 데 비해 서사시인은 그것을 재현하여 제시한다는 점은 여기서도 입증되는 일이다. 이들 작품에서는 이러한 두 성향이 함께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헤겔Hegel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러가지 종류의 서사시가 서정시적 어조의 표현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서정시도 또한 그 내용과 형식 속의 서사시적 사건을 채택할 수 있으며, 결국 서사시로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영웅에 대한 노래, 로망스, 발라드 등이 이런 유에 속한다. 이런 종류의 서정시 경우에는 상황이나 사건의 전말이라든가 혹은 국가 운명의 전환점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보고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작품 전체에 있어서의 형식이 '서술적'이며, 다른 한편으로 기본적인 경향은 서정적이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실제 사건에 대한 비주관적인 묘사 전달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시인의 느낌과 접근 방식이며 전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기쁨, 비탄, 용기, 좌절 등이며 이러한 작품이 노리는 효과도 완전히 서정시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인이 의도하는 바는 서술된 사건에 의해 스스로 느꼈던 것과 동일한 정조를 듣는 사람에게 환기시키려는 것이다.<sup>15)</sup>

이옥의 시작품에 나타나는 서사성은 객관적 사건들을 전달하려는 데서 나타나는 성향이 아니고, 그것들에 대한 시인의 느낌을 드러내고자 하는 과정에서 조성된 성향이다. 헤겔의 설명은 이와 같은 이옥 시의 장르적 복합성을 명료하게 설명해준다. 반면 ③은 고전적인 영웅 서사시의 범주에 들 수 있는 작품으로 조선족 민간 전설에서 취재한 내용을 서사적으로 읊은 것이다. 장백산 항일유격대의 '날고 뛰는' 장수가 보여 준 빛나는 무용담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그 영웅이 잡힘으로써 비극적 파멸을 맞이하지만, 시인은 그것을 단순한 파멸로 그려내지 않는다. 동족 주

14) E. 슈타이거, 李裕榮·吳賢一 譯, 『詩學의 根本概念』, 삼중당, 1978, pp.278~279.

15) G. W. F. 헤겔, 崔東鎬 옮김, 『헤겔詩學』, 열음사, 1987, p.166.

민들이 영웅의 무덤을 만들고 함께 적에게 대항함으로써 그들은 영웅의 정신을 공유하게 된다. 결국 영웅의 활약은 한 개인에 한정된 문제이나, 그 개인을 죽이는 대신 마을 주민들을 모두 영웅으로 상승시키는 데서 이 시는 끝을 맺는다. 사건의 서사적 완결성 뿐만 아니라 운명의 제시, 집단적 정신의 발현 등을 통하여 이 작품은 정통 서사시로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1,300여행의 장편 서사시 <연변의 노래>는 ③과 같은 시기에 쓰여졌으며 부분적으로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서사시에 투영된 것은 항일무장투쟁이라는 현실적 소재를 중심으로 한 민족의 보편적 감정이었다. 작품에 등장하는 영웅은 실제 인물일 수도 있겠으나 조선족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던 소망적 사고가 응집되어 만들어진 이상적 인간상이었다. 그런 인간상을 이육은 자신의 입을 통하여 공통의 언어로 부조해 내었을 뿐이다. 서정시를 주로 하면서도 서사시를 지을 수 밖에 없었던 현실적 이유가 여기서 밝혀진다. 그 결과 그의 시편들은 개인 창작에서 공동의 소유로 승화되는 것이다.

이육은 서정시를 창작하는 한편 서사시를 창작하였고 상반되는 두 성향들(서정성/서사성)을 혼합한 시편들을 창작하였다. 그것은 개인적 감정과 집단적 역사의를 통합하여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한 시인 이육의 현실인식이자 장르의식이었다.

### Ⅲ. 작품적 특징

#### 1. 짜임새

이육 시의 경우도 詩的 짜임의 일반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가 서정시와 함께 서사시를 여러 편 남기고 있으며, 서정시 안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서사적 성향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시인들보다 서사적 짜임을 빈번히 원용하였을 개연성은 있다고 본다. 병렬과 순차, 축약 등을 중심으로 이육 시의 짜임새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반복에 의한 병렬과 내적 순차의 혼합

반복은 운율 등 시의 형태적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일정한 언어 단위들의 반복에 의한 평형과 대조, 또 그것들의 질서 있는 변화에서 감지할 수 있는 자질이 운율이다. 반복은 언어의 기본적 요소인 單音·음절·단어·어절·행·연 등 모든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노래나 시 작품에서 흥미의 중점이 되며 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병렬도 반복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논자에 따라 병렬(혹은 병행)과 반복의 관계를 다르게 파악하기도 한다. 반복을 병렬의 하위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하고<sup>16)</sup> 오히려 그 반대로 보기도 한다.<sup>17)</sup> 즉 병행은 반드시 行을 기본 단위로 하는데 雙으로 구성되며 對應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내적 순차는 시간적 진행이나 행위의 계기적 발생, 장면의 변화 등으로 표현되는 짜임의 원리다. 서정이나 서사 모두 이러한 순차적 짜임을 기본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는 그것이 내면으로 숨고 후자는 표면에 드러난다. 병렬이나 병행은 의미상으로 對句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장르로 漢詩를 들 수 있다. 이육이 어려서부터 한시의 소양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그의 시에 나타나는 대구와 한시의 그것은 모종의 관련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이육의 작품 가운데 서사시 그 자체나 서사적 경향의 시들에서 순차적 짜임이 나타날 것은 당연하다. 직접 작품을 들어보기로 한다.

④ 님이시여 당신이 부르시며는  
우거진 숲속의 사슴의 다름으로  
안개의 골짜기로 찾아서 가지오

님이시여 당신이 부르시며는  
안마을 찾아오는 제비의 나뭇으로  
검푸른 大空으로 찾아서 가지오

16) 金大幸, 『韓國詩의 傳統研究』, 개문사, 1980.

17) 崔美汀, 別曲에 나타난 並行體에 대하여,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82.

님이시여 당신이 부르시며는  
하늘에 흐르는 번개의 빛으로  
火山의 비탈도 찾아가시오  
— 〈님 찾는 마음〉 —

⑤ 바위 바위

등가슴으로 칼산을 떠받고  
屢年屢代 침묵을 지키누나  
  
바위를 배우자  
사악한 비바람도  
긴긴 세월 좌절시키지 못했어라  
언젠가 한번은 진감하리

바위 바위  
한몸에 이끼를 떨치고  
해해年年 시련을 격누나

배우자 바위를  
사나운 풍랑도  
긴긴세월 뒤흔들지 못했어라  
어쨌든 한번은 고향치리.

— 〈바위〉 —

⑥ 아름다운 산이로다.

푸른 삼림과 흰구름——  
머루, 다래  
노루, 사슴  
무지개  
독수리

아름다운 강이로다.  
능수버들과 조약돌——

물방아, 징검다리

선창, 밭  
빨래  
붕어

산모퉁이에 감돌아앉은 마을과 마을  
물구비에 펼쳐놓인 들과 들  
밭에 메나리 농군이구나!  
길에 행진곡 군대로구나!  
노래노래 뭉치여  
이 마을 꿈은 황홀하거니.

— <라자구의 인상>에서 —

④는 똑같은 짜임새를 지닌 연들 세개가 병렬되어 이루어진 작품이다. 부분적인 내용의 차이만 보일 뿐 외면적으로는 똑같은 부분들의 반복이다. 그러나 각 부분들이 ‘서두-본체-결말’의 3단으로 짜여져 있고 내면적으로는 시상이 고조되어 결말을 짓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즉 “숲속→안마을→하늘’/‘사슴→제비→번개’/‘안개의 골짜기→검푸른 大空→火山的 비탈” 등으로 점층에 의해 시상이 고조됨으로써 단순한 병렬로 마무리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표면적으로는 병렬되어 있으나 이면적으로는 정도의 순차적 나열을 통하여 시인은 자신의 의도대로 격한 정서를 표출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⑤를 보자. 1, 2연과 3, 4연은 정확한 대칭이다. 즉 1연과 3연, 2연과 4연은 교차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등가슴으로 칼산을 떠받고 : 한몸에 이끼를 떨치고/屢年屢代 : 해해年年/ 언젠가 : 어쨌든/진감하리 : 고향치리”등과 같이 주요 어휘들을 달리 배치함으로써 모종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 반복으로 전통민요나 동요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④에 비하여 ⑤는 교차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단단한 시적 결구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⑥은 <라자구의 인상> 가운데 1, 2, 3연이다. 1연과 2연이 어휘들만 교체되었을 뿐 정확한 반복임은 말할 것도 없다. 3연에서도 어휘들이 반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밭에 메나리 농군이구나!/길에 행진곡 군대로구나!”처럼 행들도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반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物目들이 나

열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새로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제의 구현에 기여한다.

## 2) 漢詩的 對句

⑦ 앵두꽃 지자 살구꽃 피니  
새와 나비 탐스럽게 감도네.  
  
꿈속에 이 몸 늙은줄 몰랐더니  
깨여보니 능운각에 올랐길래.  
- 〈북경서산〉 -

⑧ 고성이 절반 하늘 둘러  
옛 풍진은 아득하구나.  
  
다섯번 진공한 요새요  
세번 전승한 진지라네.  
  
천추에 밝은 달 창공에 걸렸고  
만고에 의론 배 큰 강에 비졌네.  
  
영웅 달리던 곳 물으니  
멀리 큰 산봉을 가리키네.  
- 〈고성〉 -

이 두 작품들은 한시에서 볼 수 있는 대구의 방법과 표현법을 채용하고 있다. ⑦은 5언 혹은 7언절구를 번역한 듯한 시상이며 짜임새이다. 1행과 2행, 3행과 4행이 각각 대구로 연결되고 있는데 의미상으로 유사하든 상반되든 각 구는 넓은 의미에서 병렬의 한 양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의미 전개는 ‘기-승-전-결’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⑧의 2, 3, 4연은 모두 대구로 이루어진 연들이다. 그리고 전체는 ⑦과 마찬가지로 ‘기-승-전-결’의 방식으로 결구되었다. 말하자면 ⑦과 ⑧이 외면상 시인의 감정을 평면적으로 표출한 서정시에 불과한 듯 하나, 내면적으로는 병렬과 순차적 전개에 의해 주제를 구현해 나간 작품인 것이다.

## 3) 시간순차

- ⑨ 그대는 빈농집 출신으로  
 열한살 소학교 3학년때  
 새벽안개 자욱한 우심산기슭에서  
 높들께 잡혀가는 아버지를 생리별하였구나.

그 뒤 시간은 흘러 10년동안  
 50줄에 든 홀어머니를 도와  
 여름에 김을 매고  
 겨울에 나무도 비였거니

그 어느날 밤인가  
 팔굽빠진 중학생 교복입은 옛장사 그대에게  
 나는 호주머니를 뒤져 단돈 90전을 손에 쥐여줬더니  
 아무말 없이 받아쥐고 머리를 숙인 채 가던 그대  
 지금도 나의 머리에 아리송아리송 새겨져 있구나.

— <존귀한 희생>에서 —

- ⑩ 어느날 으스스한 초생달밤  
 불시에 안개비 부슬부슬 내릴제  
 왜놈들은 십리련봉에 보초를 세우고  
 매바위 아래서 용사를 교살했더라.

이튿날 동천에 해가 흰히 떠오르자  
 숲속에서 산새들이 지저귀는데  
 동산 양지바른 높은 산중턱에  
 고층같은 큰 무덤이 나타났더라.

무덤우에는 푸른 잔디가 고이 덮히고  
 무덤앞에는 아름답리 통나무묘비가 섰는데  
 비문에는 《조선족 영웅의 묘》라고 하고  
 모서리에는 《형제민족 새움》이라 했더라.

— <장백산의 전설>에서 —

⑨는 엄밀하게 말하여 서사시 그 자체는 아니다. 한 인물의 고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인 자신의 느낌을 읊고 있으므로 서정시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상당부분은 서사적으로 짜여지고 있다. 이 부분들은 서사대상의 묘사와 함께 구체적인 시간의 흐름 및 장면 변화에 의한 순차로 이루어져 있다. 열한살(소학교 3학년때) 때로부터 10년후, 또한 중학생 시절 등에 이르는 기간은 단순한 물리적 시간순차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나 장면의 변화를 수반한 서사적 시간순차이다. 아버지와 생이별한 장면으로부터 어머니를 도와 온갖 고생 다 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과정 역시 서사적 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⑩은 본격서사시이다. 한 영웅의 활약상과 그의 죽음을 계기로 각 민족이 단합하여 일제를 타도하는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인용한 내용은 2부 중간부분이다. 첫부분의 시간대는 밤(으스스한 초생달밤)이다. 둘째 부분의 시간대는 아침이고 세째 부분의 그것은 한낮이다. 그러한 시간순차는 ‘영웅의 죽음→무덤의 조성→무덤의 출현’이라는 장면변화와 대응됨으로써 서사적 순차로 완결된다.

이욱의 많은 시작품들이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 짜여져 있는 것은 아니다. 서정시작품 안에서도 서사적 짜임의 수법을 부분적으로 채용할만큼 방법적 측면에서 실험적이었던 그의 시작 태도를 보아도 장르 혹은 짜임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비교적 자유로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여기서 언급된 사항은 그의 시작품들 가운데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장르의식이 서정, 서사 혹은 양자의 交織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짜임 역시 대략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4) 悟道的 縮約

이상에서 언급한 것들은 반복과 병렬, 혹은 순차를 짜임의 기본으로 하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모두 서술적 설명이나 饒舌의 경향을 띠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시의 본질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물의 예각을 절묘하게 드러내는 奧妙함이 서정시의 본질이다. 禪的인 直指人心이나 妙悟의 경지가 그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앞에서 언급한 것들은 이욱 시의 정수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욱 문학의 정체는 短詩들에서 찾을 수 있다. 사물을 통한 진리의 깨우침에는 辭說이 필요 없다. 시간과 공간의 묘사, 인과관계의 설명 등을 과감히 생략함으로써 간결의미를 추구하는 시편을 이루어낸 것이다. 이른바 축약의 짜임을 그는 보여준 것이다.

## ⑪ 칠순

할아버지  
 나무를 심으며  
 어린 손자를 보고  
 싱그레 웃는  
 그 마음, 그 마음…

— 〈할아버지의 마음〉 —

## ⑫ 한장

벽돌이야  
 무엇 하라마는  
 천만장이 모이니  
 땅을 차고 일어나  
 궁전이 되누나!

— 〈벽돌〉 —

## ⑬ 어느 시절부터 잠들었더냐?

아마 상전이 벽해되고  
 벽해 상전이 된 때였는가부다.

진정 진히 잠들었다만  
 어서 깨우쳐라  
 훨훨 타는 만장의 불길을.

— 〈석탄〉 —

## ⑭ 천만줄기 강물이

한 가슴에 흘러든들 만족하라  
 샘과 시내도 꺼리지 않더라.

바다는 거울처럼 겸허하여  
 해와 달이 잠들고  
 진주와 산호 깃들더라.

— 〈바다〉 —

⑮ 새벽종은 붉은해 맞이하고  
 맑은샘엔 칠색무지개 걸렸네.

보슬비 어느새 살구꽃 피우는가  
 산들바람 슬쩍 버들잎 돋치네.

— <초봄> —

이 작품들 모두는 깨우침의 짧은 외침들이다. 짧은 시행들 속에 크고 깊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소재나 대상들을 인간사로 대치시킬 경우 그대로警句가 됨직한 내용과 짜임들이다.

⑪은 한 문장으로 이어가다가 그마저도 끝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 시의 핵심은 바로 생략부호에 있다. 시인은 不立文字의 경지를 이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 마음’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걸 설명하려 들다가는 전체의 시적 구도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시인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제시되지도 않았지만 독자들 역시 시인의 깨달음을 알려고 해서도 안되고 알 필요도 없다. 이 생략부호가 독자에게 불러 일으켜주는 충격과 음미의 욕구 만으로도 이 시의 존재 이유는 충분한 것이다.

⑫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한 장 벽돌의 의미, 이것들이 천만장 모여 궁전이 되는 변모의 의미가 느낌표로 제시되고 있다. 한 장의 벽돌을 모아 궁전을 쌓아가는 과정이야 짧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만큼 복잡다단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한 문장과 느낌표로 대치시켜 압축하고 말았다.

⑬은 두 문장의 두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석탄을 두고 ‘잠들어 있다’고 관찰한 것도 범상치 않은 시적 안목이려니와 둘째 연의 ‘어서 깨우쳐라’는 시행은 ‘진리를 깨우치는(悟道)’것 만큼이나 간결하고 직접적이다. 긴 말이 필요 없음을 시인은 경구와 같은 짤막한 시행으로 표현하고 있다.

⑭도 ⑬과 같은 구조와 규모로 되어 있다. 바다의 너넉함을 드러내기 위해 천만 줄기 강물을 끌어왔고, 바다의 겸허함을 드러내기 위해 거울을 보조관념으로 삼고 있다. 바다의 너넉함·겸허함을 말하기 위해 설명이나 장황한 비유를 끌어오지 않았다. ‘너넉함’으로부터 ‘겸허함’까지 넘어오는 과정 역시 과감히 생략하고 있는 것

이다. 바다의 덕에 대한 깨달음을 이와 같은 두 가지로 축약하여 제시한 셈이다.

⑮도 비슷한 경우이나 전자들에 비해 약간은 묘사적이다. 이 작품의 전반부는 회화적이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전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오묘함에 대한 깨달음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작품들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거나 진행과 변화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것들이다. 장시보다도 오히려 단형 서정시에서 밀도 있는 짜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옥시의 특징이기도 하다.

## 2. 이미지

한편의 시가 하나의 이미지를 표상하거나 여러 이미지들의 집적체라는 사실은 이미지가 詩的 의미나 짜임에 있어 주된 요소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신체적 지각에 의해 일어난 감각이 마음 속에 재생된 것, 상상력이나 환각 등 마음 속에서 생산된 것이 모두 이미지이고 이와 같이 언어에 의하여 마음 속에 생산된 이미지群이 이미저리 *imagery*이다. 이미지는 주제 또는 주제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이미지의 적절한 구사는 시적 형상화의 수준과 직결된다. 이 부분에서는 상실 및 투쟁의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시각·청각 등)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상실과 투쟁의 이미지

이옥을 비롯한 재만시인들은 조국(고향)상실의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의 시에는 실향의식과 함께 조국(고향) 상실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분노나 투쟁이 주제의식으로 투영되기 마련이었다. 재만시인들 가운데서도 소극적인 경우에는 내면화된 실향과 연모의 정서를 드러내었고, 적극적인 경우에는 투쟁의 정서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서사시를 짓거나 서사적 표현을 즐겨 사용한 이옥의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㉑ 올빼미 낮이드냐  
언제나 날카로운 솔개미 뜨면  
지새는 안개처럼 꿈무늬만 빼고

웨——  
 앵도꽃밭 발자국엔  
 悔恨의 눈물만 고였느냐  
 너는 오늘도  
 故鄉을 못 잊어  
 허무러진 옛 돌담길을  
 몇번이나 돌고도나——  
 - 〈봄꿈〉 -

- ㉠ 거울 속에  
 시드는 靑春이 옛 하늘을 안어본다  
  
 나의 봄이 고개를 넘으니  
 世紀의 化石우에 自畫像이 슬프고나  
  
 나의 심장에 간직한 大河는  
 太陽을 안고 九曲을 흐르나니  
  
 오늘도 내 心琴의 七絃을 고너본다  
 꽃지고 달떠도 한 曲調 永遠히 흐르는 人生의 노래——  
 - 〈나의 노래〉 -

- ㉡ (前 略)  
 대지의 정열을 안고도  
 푸른 하늘을 이고 묵묵히 앉았으니  
 너 모아산은 위대한 거인같기도 하구나.  
  
 네 머리우에 해와 달이 흘러  
 쌓인 정노 터지는 날은  
 자유의 기발이 날리리니  
  
 우리의 도문강 건너서  
 처음 본 모아산은 푸르러야 할텐데  
 백년을 기다려야 하느냐

천년을 기다려야 하느냐.

우리의 노래속에 내려치는

호탕한 산매라네.

우리의 기발우에 날아에는

장렬한 산매라네.

이제 나는 산에 내려

못사람들 속에서 높이 소리쳐

너 산울림을 듣는다.

— 〈모아산〉에서 —

㉞ (前 略)

몇번 쇠그물을 뛰쳐나

지상 제하에서 싸우던

구사일생의 정한한 동무 있었다.

그는 노도였고

그는 제전이였고

그는 표범이였고.

때는 회한의 그림자를 감추고

력사는 옛 위치를 바꾸매로

잃어진 생리를 찾아

빼앗긴 청춘을 찾아

인생의 대하에 나리거니

생활의 밀림에 들거니.

오오! 새 화원에 나가 씨를 뿌리자.

그리고 봄을 불러 꽃을 피우자.

붉은 꽃을 피우자.

— 〈새 화원〉에서 —

㉞은 타향에서 시달리는 외로움과 향수를 절절히 형상화한 작품이다. ‘올빼미 닮’

은 현실에서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시인 자신의 모습을 은유한 말이다. ‘앵도꽃밭’은 외면적으로는 아름다운 현실이지만 고향을 잃어버린 이에게는 ‘悔恨의 눈물만 고이는’ 불만족스런 현실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화자는 관념상에서나마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허무러진 옛 돌담길’을 방황하는 것이다. ‘허무러진 옛 돌담’은 고향의 이미지로 나타나 있다. 실향의 시름에 젖어 방황하는 못난 자신을 ‘올빼미넋’에 비유하고 있는 시인으로서의 고향을 찾는 일이란 봄날의 ‘꿈’이나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그러나 ㉠은 분위기의 면에서 다른 작품이다. 필자가 이 부분에서 ㉠을 든 것은 상실을 노래하고 있으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삶에의 의욕을 주체의식으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失郷이라는 특수한 경험을 노래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늙음에 대한 비탄이라는 보편 감정을 노래한 것이다. 으레 실향의식을 지니게 마련이던 재만시인들도 기본적으로는 인생에 대한 달관이나 관조의 단계를 거쳤음을 우리는 이런 작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시드는 青春’과 ‘슬픈 自畫像’은 시인 혹은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심장에 간직한 大河’와 ‘永遠히 흐르는 人生의 노래’는 상실의 아픔을 극복할만한 새로운 발견이다. ‘꽃지고 달뜨는’ 세월의 흐름 그 자체를 인생의 상실로 볼수도 있지만 ‘한 곡조 永遠히 흐르는 人生의 노래’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상실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 ㉢은 투쟁의 정서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작품들로서 앞의 것들과 성격을 달리한다. 모아산은 龍井과 延吉 부근에 있는 산으로, 재만 조선인들에게는 그 산이 자신들이 겪은 삶의 애환을 지켜 보았을 것으로 생각했음직하다. 시인은 이 산에서 ‘위대한 거인’의 이미지를 발견한다. 세월이 흐르는대로 참다 참다 쌓였던 분노가 견잡을 수 없이 터지면, 투쟁의 선봉자·승리자가 되리라는 말이다. ‘자유’의 기발’이란 거센 투쟁을 통하여 압제의 대상을 파괴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유, 그 자유의 선봉임을 의미한다.

㉣은 투쟁의 化身인 어떤 인간상을 노래한 작품이다. ‘노도·제전·표범’은 투쟁과 희생의 이미지로 쓰인 말들이다. ‘잃어진 생리·빠앗긴 청춘’을 되찾는 일은 상실의 悔恨을 극복하고 옛 역사를 돌이키는 일이다. 이런 일은 현실의 안락을 팽개치고 ‘광야를 헤치며 섬어하던 미친 동무·피는 말라 화석된 동무·구사일생의 정한한 동무’만이 할 수 있는 투쟁의 결실인 것이다. ‘새 화원’은 새롭게 회복한 삶이 터전

이고, '봄을 불러 피운 꽃·붉은 꽃'은 사회주의의 이념적 결실이다. 이옥의 시들에 나오는 투쟁은 주로 구체적인 영웅이나 영웅적 존재의 등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가 서사시를 통하여 보여준 것은 투쟁적 영웅의 출현에 대한 갈망이다.

그가 시 작품에서 상실만을 노래한 것은 아니다. 상실을 투쟁으로 극복하려는 적극성을 시적으로 형상화하려 하였다. 상실과 투쟁의 이미지가 작품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것도 여기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 2) 감각적 이미지

시상의 전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있다. 시각적 이미지의 시어로 색채어·의태어 등을 청각적 이미지의 시어로 의성어를 각각 꼽을 수 있다. 촉각적 이미지도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외에도 공감각적 이미지가 있다. 그것은 대상으로부터 촉발된 하나의 감각이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轉移되는 이미지이다. 이옥의 시에도 여타 재만시인들의 작품에서와 같이 감각적 이미지의 시어들이 많이 쓰였다. 다음의 작품들을 살펴보자.

- ㊦ 백공작이 날개 펴는  
 바다가 그림고 그리워  
 향시 칠색무지개를 그리며  
 련꽃향아리에서  
 까무러진 상념에  
 툭-툭 꼬리를 친다.
- 안타까운 운명에  
 애가 타고나서  
 까만 안공에 불을 켜고  
 자주 황금갑옷을 떨치나니
- 붉은 산호림속에서  
 맘대로 진주를 굴리고 싶어  
 즐곤 창너머로  
 푸른 남천에

희망에 기폭을 날린다.

- 〈금붕어〉 -

- ㉠ 멀리 분홍빛 바다에 白孔雀이 나래를 펴니  
 돋우어 벤 벼개우엔 서른 꿈이 바수여진다.

○

흰달이 어린 덧문을 집어뚫던 어린아이—  
 그 빨간 입술에 새 神話홀렸단다.

○

보라빛 치마끝에는 참새주둥이 봄을 나꾸고  
 먼 뜰엔 푸른 옷 갈아입는 소리 스미다.

○

푸른하늘 저편엔 여름구름이 날려오고  
 傳說을 담은 海峽엔 보얀안개 서리우다.

○

江南에 동백꽃 피었다는 消息만 듣기면  
 설레는 내 가슴속에는 까무러진 향수가 꼬리친다.

- 〈浦口の 봄 아침〉 -

색채 이미지의 시어들이 등장하는 시편들은 이것 외에도 많지만 이 작품들에 쓰인 색채어들이 시적 의미의 전개에 관여한다고 보아 이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우선 세계의 연으로 이루어진 ㉠에는 각 연마다 색채어들이 배치되어 있다. 첫연에서는 ‘白(백공작)·靑(바다) : 七色(칠색 무지개)’이, 둘째 연에서는 ‘黑(까만 안공) : 黃(황금갑옷)’이 세째 연에서는 ‘赤(붉은 산호림) : 靑(푸른 남천)’이 각각 대응을 이루어 제시되고 있다. 금붕어는 화자인 시적 자아가 투영된 대상이다. 따라서 시인이 아무런 생각없이 색깔을 배치했다고 볼 수는 없다. 백색은 순수·청결·순결 등을 표상하고, 청색은 명상·영원·심원 등을 표상한다.<sup>18)</sup> ‘백공작이 날개 펴는 파란 바다’는 순수와 순결을 상징하는 영원한 명상의 대상이다. ‘칠색무지개’는

18) 朴度洋, 『實用色彩學』, 이우출판사, 1977, pp74~75 참조. 이하 색의 연상 및 상징은 이 책에 의거함.

이상을 상징한다. 그것은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고통받는 자에게는 안식을 의미한다. 둘째 연의 까만색은 절망과 불안을 표상한다. ‘안타까운 운명에 애가 타고’ 난 나머지 절망과 극에 달한 불안을 ‘까만 안공’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황색은 희망이다. 극에 달한 절망과 불안을 넘어서 이제 희망의 황금갑옷을 입어 본다고 할 수 있다. 그 희망은 세째연에서 좀 더 구체화된다. 붉은 색은 대체로 부정적인 연상을 하게 마련이나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은 활력을 표상한다. ‘붉은 산호림’은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삶터이다. 여기에 안정과 평화를 상징하는 ‘푸른 남천’이 제시됨으로써 시적 자아의 소망이 구체화 된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기폭을 날린다’는 구절은 이 시의 주제이며 동시에 앞에 나온 색채 이미지들의 배치와 배합에 대한 결정적 해석이다. 이 시는 금봉어에 시인 자신의 내면을 투사하여, 자신의 소망을 그려낸 작품이다. 어항 속의 금봉어처럼 무엇인가에 갇혀서 허둥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는데 색채이미지들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㉑에서는 색채의 이미지가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1연(분홍빛 바다, 백공작)-2연(흰 달, 빨간 입술)-3연(보라빛 치마, 푸른 옷)-3연(푸른 하늘, 보얀 안개)-4연(동백꽃) 등이 그것들이다. ‘분홍빛’ 바다는 환희를 표상한다. 그것을 배경으로 한 ‘백공작’은 순결과 환상을 나타낸다. 순결의 ‘흰 달’, 환희의 ‘빨간 입술’이 등장하는 2연에서 ‘神話’가 제시됨으로써 1연의 환상이나 애상적 추억(서른 꿈)은 사실로 확인이 된다. 3연의 ‘푸른 하늘’은 희망을 나타내고 ‘보얀 안개’는 ‘傳說’을 담은 海峽에 서리는 것처럼 환상적이다. 4연의 동백꽃은 분홍색으로서 정열과 환희를 표상하며 여기서는 향수를 의미한다. ‘강남의 동백꽃’은 고향인 강남과 동백꽃이 등가적으로 제시된 구절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동백꽃의 분홍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작품의 주제는 향수, 즉 붉은 동백꽃이다.

이것들 외에도 부분적인 감각어 사용의 실례들은 부지기수다. “초록물결이 넘치는 한낮 牧場· 연분홍 빛 구름도 뭉기뭉기 피는데· 五月의 푸른 하늘을 風俗하고 <五月>/푸른 鄉愁를 묻고 내려 고이 잠든다<별>/너의 빛 千古에 푸르러· 푸른 하늘 아래서· 동실동실 춤을 추며<豆滿江에 묻노라>/처음 본 모아산은 푸르러야 할텐데<모아산>/보얀 안개를 먹음고· 빨간 놀을 吐하오· 老黑山 푸른 이끼에· 푸른 물낫에· 老夫의 孤魂은 黑珍珠에 숨은채<鏡泊湖>/마지막 戰爭은 분홍장미 고개

너메다<血痕에 핀 꽃>/갑사댕기처럼 진한 五月의 붉은 맘씨·나는 울어 丹楓이 붉었다·나는 초록치마에 갑사댕기처럼 진한 五月의 붉은 맘씨를 노래한다<五月의 붉은 맘씨—누나가 죽든 가을의 추억>/푸른별과 더부러 기리 빛나고·붉은 꽃과 더부러 기리 향그러우리<碑文>/빨간꽃은 충성이요 파란꽃은 행복이요·내 머리 영낙없이 더욱 희련만·하나, 내 마음 더욱 붉어지리·눈앞엔 청산이요·발밑엔 록수로다·푸른 하늘, 붉은 노을아래·붉은 기 휘날리고·붉은 태양 우리 맘 길이 비취주고·억천만년 황금빛으로<조국송가>/푸른 삶림과 흰구름<라자구의 인상>/푸른 하늘에 별이 총총하던 밤<옛 말>/아침 연기 보얗게 퍼지면·총총 걸어올라오는 다홍치마<젊은 내외>/아침이슬을 사뿐사뿐 밟으면·비둘기 빙빙 날아도는 지평선·평화로운 마을에 피어나는 푸른 연기에·뉘엿뉘엿 석양은 더욱 붉어<석양의 농촌>/파랏파랏한 묘목마다에·저녁노을이 빨갭게 서리는데<배나무를 심으며>” 등을 골라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만 시인들의 시에 감각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육도 예외는 아니다. 색채어를 포함한 감각어들이 우리의 고유한 언어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현상은 이역에서 우리의 언어를 고스란히 지켜나온 그들의 노력이 표면화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IV. 결 론

이상에서 이육의 시작품들을 살펴 보았다. 그는 1984년 작고할 때까지 60여년간을 꾸준히 창작해 왔으며, 그 결과 재만시인들 가운데 多作한 시인으로 꼽힌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그가 처녀작(<생명의 禮物>)을 발표한 1924년으로부터 해방전까지에 이르는 기간을 前期, 해방으로부터 문화대혁명 이전까지를 中期, 문화대혁명 이후 작고할 때까지를 後期로 본다. 필자 역시 그러한 관찰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詩作이 주로 자신의 현실적 체험을 골간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국을 상실한 채 이역을 방황하던 과정에서 삶의 극한상황을 여러 번 넘어야 했던 처절한 체험은 그대로 그의 문학에 반영되어 있다. 감미로운

서정시보다는 투쟁적인 서사시, 서정시라 할지라도 서사적 요소가 다분한 작품들을 주로 창작한 그의 작품적 성향에서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제만시인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시문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질 역시 삶의 철저한 반영이다. 그의 문학을 짚어나가다 보면 그가 겪어야 했던 역사의 질곡이 그대로 드러난다. 해방 이전의 시들은 조국(고향)을 상실한 채 타향에서 방황하는 실향의 식과 항일의 투쟁의식이 주제의 큰 부분으로 부각되어 있다. 해방 이후의 작품들에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 특히 사회주의에 대한 傾倒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익힌 漢詩的 소양으로부터 서정시의 본질을 터득했던 듯하다. 그와 함께 청소년 시절 바이론, 쉴러, 휘트만 등 서양 시인들의 작품을 탐독하였는 바 그의 시에 나타나는 상징이나 인상적 수법 등은 그러한 서양시인들의 영향을 입증한다고 한다. 그의 작품들은 서정시, 서사시, 서사적 서정시 등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복합적 장르의식은 문학의 이상과 자신의 현실을 적절히 배합해야 했던 필연적인 상황의 소산이었다. 짜임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본격서정시는 短詩들이 대부분이다. 시간과 공간의 묘사, 장면 변화에 대한 서술을 과감히 생략함으로써 일종의 悟道的 警句와 같은 간결미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서정시이면서도 그 속에 서사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작품들과 본격 서사시들은 아주 길다. 반복·병렬·시간순차 등은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강조하여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특히 항일 투쟁 영웅의 활약을 서술한 서사시들에서는 英雄史觀에 상응하는 영웅 待望의 역사의식을 주제로 부각시켜 놓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민족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킬만한 영웅의 출현은 당대 지식인들의 공통적 소망이었겠으나 그 소망을 시 작품으로 형상화시킨 것은 이육에게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낭만주의적 경향과 사실주의적 경향을 하나로 융합시켜 문예사조상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보여 준 점에 시인으로서의 이육이 갖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그의 시를 장르별, 주제별, 시기별로 다시 정리하여 한국문학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하는 일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본다.

## 附錄 : 이육의 해방 전 시 작품

### 1. 生命의 禮物

生命은  
宇宙이다  
그러나 宇宙는 生命보다 작다

山  
바다  
나도 生命의 한개 점이어니!

나의 붉은 젓기슴에서 뛰는  
生命의 巨流여!  
生命의 戰爭이여!

生命은  
征服의 날개!  
創造의 힘!  
永生の 길!

내 이제 뛰는 生命의 脈搏을 닦기에  
生命은  
빛난 禮物을 괴여들고  
이 밤의 광야에서  
나의 앞에  
화불을 들었구나

〈1926, 「간도일보」〉

## 2. 님 찾는 마음

님이시여 당신이 부르시며는  
우거진 숲속의 사슴의 다름으로  
안개의 골짜기로 찾아서 가지오

×

님이시여 당신이 부르시며는  
안마을 찾아오는 제비의 나뭇잎으로  
검푸른 太空으로 찾아서 가지오

×

님이시여 당신이 부르시며는  
하늘에 흐르는 번개의 빛으로  
火山の 비탈도 찾아가시오

〈1930. 5. 21. 「민성보」〉

## 3. 눈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눈꽃이 날린다

두루미 깃이나  
배꽃잎이나  
옥가루이나

함박눈을 사뿐사뿐 밟으면  
불현듯 생각나오니

송강의 글소리는  
아리송한 전설이요

장자의 눈글은  
아득한 신화로다

천지는 온통 눈꽃에 덮여  
이 몸이 꽃송이에 묻혔으니  
내 맘은 꽃향기에 젖노라  
〈1929. 12.〉

#### 4. 봄비

지새는 봄날  
고요한 날  
보슬보슬 가랑비  
나리입니다.

보슬보슬 그 비는  
마음 간지러  
우산도 안 받고  
가게하지요.  
넘없고 그리는 이  
울게하지요

— 3월 24일 —

〈『朝鮮文壇』 1925. 6. 1.〉

#### 5. 送年詞

갈 이는 어서 가야느니  
시비 없이 보내야느니  
밑천없는 카렌다쪽에 붙어

하로바빠 가야느니

三三의 자태가 너무도 아릿답기에  
 지나간 해외 바람(望)은 너무도 컸었드라니  
 지저분하게 속아버린 것이 꺾임수  
 텅-빈 마음만 꽤까다람네

무엇하나 봄받음하나없이 失望만을 언저준 고집세인  
 巡禮者를 구지 본잡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본척도 아니하고 자기 갈길만 가고 있는 것을  
 든적스럽게 굴을 수도 없고

러나 오직 그가 끼쳐준 가느스름한 體驗만이  
 새해의 새꿈 속에서 묘하게 더러지겠지

二

올 이는 어서 와야느니  
 시비없이 맞아야느니

태엽풀린 時計소리 맞춰  
 한시 바빠 와야느니

三四의 자태가 너무도 秩序답기에  
 未練많은 이해를 돌찾어 보라고  
 낮서른 새해를 차근차근 따러볼 결심  
 아-슬한 憧憬만이 안타까웁네

무엇하나 꺼리낌없이 희망만을 믿기삼아 번연히  
 쇠길 巡禮者인줄을 알면서도  
 더군다나 푸념하나없이 실금이 물너았을 늙은이의  
 버릇인줄을 알면서도

러나 오, 그가 끌고 가는 心然만이  
현실의 파악속에서 묘하게 꾸며지겠지

— 三十三年을 보내며 —

〈『朝鮮文學』二卷 一號(新年號), 1933. 12. 25.〉

## 6. 금붕어

백공작이 날개 펴는  
바다가 그림고 그리워  
항시 칠색무지개를 그리며  
런꽃향아리에서  
까무러진 상념에  
툭-툭 꼬리를 친다.

안타까운 운명에  
애가 타고나서  
까만 안공에 불을 켜고  
자주 황금갑옷을 떨치나니

붉은 산호림속에서  
맘대로 진주를 굴리고 싶어  
줄곧 창너머로  
푸른 남천에  
희망에 기폭을 날린다.

〈1938년 발표. 1980년 『리욱시선집』에 수록〉

## 7. 나의 노래

거울 속에

시드는 靑春이 옛 하늘을 안어본다

나의 봄이 고개를 넘으니

世紀의 化石우에 自畫像이 슬프고나

나의 심장에 간직한 大河는

太陽을 안고 九曲을 흐르나니

오늘도 내 心琴의 七絃을 고너본다

꽃지고 달떠도 한 曲調 永遠히 흐르는 人生의 노래……

〈『在滿 朝鮮詩人集』〉

## 8. 척촉花

봄은 과일고개도 넘어

탐탁한 척촉꽃이

하염없이 지길래

시드는 꽃송이에

내 진정한 이야기를 부치오

꽃보라속에

나비가 놀라오

나도 늙소

그래도 내 마음 薔미에는

푸른 꿈이 깃들어 슬프지 않소

오! 전설의 나라 척촉아

이제 盛裝을 버린 너는  
여름철에  
百畝꽃을 부러워할테냐?  
가을철에  
山菊花도 부러워할테냐?  
——아니오  
——아니오  
그렇길래  
나는 너의 짧은 靑春을 사랑했다.  
나는 너의 타는 情熱을 사랑했다.  
〈『재만 조선시인집』〉

### 9. 봄꿈

올빼미 낮이드냐  
언제나 날카로운 솔개미 뜨면  
지새는 안개처럼 꿈무늬만 빼고  
웨——  
앵도꽃밭 발자국엔  
悔恨의 눈물만 고였느냐  
너는 오늘도  
故鄉을 못 잊어  
허무러진 옛 돌담길을  
몇번이나 돌고도나——  
〈1940. 4. 9. 『滿鮮日報』〉

## 10. 바위

바위 바위

등기슴으로 칼산을 떠받고  
屢年屢代 침묵을 지키누나

바위를 배우자

사악한 비바람도  
긴긴 세월 좌절시키지 못했어라  
언젠간 한번은 진감하리

바위 바위

한몸에 이끼를 떨치고  
해해年年 시련을 격누나

배우자 바위를

사나운 풍랑도  
긴긴세월 뒤흔들지 못했어라  
어쨌든 한번은 고함치리.

〈1935. 『滿蒙日報』 詩稿는 李仙虎씨 제공〉

## 11. 五月

五月은

초록물결이 넘치는 한낮 牧場을 꾸밈다  
들장미도香氣품은 넓은 둔덕위  
염소등에 휘파람이 구운다  
연분홍빛 구름도 뭉기뭉기 피는데  
종다리 그린 譜表를 쳐다보며  
풀잎피리라도 불리라

이 法悅——

이 멜로디——

우리는 豐饒한 自然을 呼吸하는 太陽의 아들

五月의 푸른 하늘을 風俗하고

五月의 푸른 大地를 習性한다.

〈『在滿 朝鮮詩人集』〉

## 12. 落葉

落葉은

내뉘을 울리고

荒漠한 꿈의 搖籃에 고이 잠든다.

乳房처럼 부푸러오른 마디마디에 붉에 맺힌

——生命이여

——盟誓여

拍子 拍子 拍子——

時空을 타고 明滅하는 神祕한 자취!

오히려 不死鳥의 生理가 애긋다

——죽음아닌 죽음의 힘

——살아닌 삶의 힘

오! 그 壯行하는 그림자의 點과 點이여

나도 먼 훗날 뉘를 놓아

하늘에 날리고

바다에 띠우면

또한 悠悠히 永劫의 줄을 타고

좋은 時節 도라오는 길에는

—— 별을 따고

—眞珠도 캐러니

〈『在滿 朝鮮詩人集』〉

### 13. 별

나는

밤이면

蒼穹을 우러러

별을 보는 習性을 가졌다.

별은

情답고

寂寥하고

幽遠하여

밤하늘은 故鄉같기도 하다.

별은

함박꽃처럼 피어나는 호젓한 이 밤에

萬年夢에 파묻혀서

恍惚한 神話를 속삭이느니

이제 별은

나의 가슴속 적은 湖水에도

푸른 鄉愁를 묻고 내려 고이 잠든다

고이 잠든다.

〈『在滿 朝鮮詩人集』〉

### 14. 豆滿江에 묻노라

노래와 외침

그리고 피와 눈물이 아롱진 生活譜——

나의 어린적 노리터  
 젊은적 눈물터  
 너의 이름이 귀여워 豆滿江!  
 설어워 豆滿江!  
 오! 感情의 江  
 오! 歷史의 江  
 너는 밤이면 별을 불러 오손도손 정다웠고  
 낮이면 때를 띄워 조릿조릿 애태웠다  
 너는 길이와 넓이로 삶으로  
 너의 빛 千古에 푸르러  
 壯士의 氣概라면  
 너의 소리 天地에 유량해  
 志士의 녀이란다.

너는 언제나  
 青春의 旗幅을 들고  
 차라리 怒號할망정  
 애꿎이 悔恨의 그림자는 훨훨 씻는구나  
 傳統의 城郭——層巖絕壁 구비를 헤쳐가면  
 바다의 우렁찬 讚歌를 부르라!  
 푸른 하늘 아래서  
 날이날마다 해와 달이 솟는 平和의 동산으로 망망히 흐르라!

白頭山脈줄줄을 따라 흐른 너의 玉流의 물줄기  
 千里 또 三百里流程에  
 꽃과 山蓼과 芝草와 사향을 실고  
 童話속 장수의 龍馬처럼  
 험한길 萬古 숲을 뚫고서  
 그——몇千 몇萬年 달렸느냐?

오오, 내가 豆滿江 네게 묻노니  
 옥졸복졸한 萬劫의 時空속에  
 許多한 지난 興亡 어떻던가?  
 너의 소리 내가 알진대  
 내마음 너도 알리라

豆滿江 너는  
 내 어린시절  
 자맥질하던 노리터  
 모래성 쌓던 노리터  
 팔매치던 노리터

그리고 내 자라서  
 소금토리 건네던 나루터  
 옷감 나르던 나루터  
 쌀짐 넘기던 나루터  
 그리고 또 豆滿江 너는

避難할때 날 업어넘긴 눈물터  
 이사할때 날 업어넘긴 눈물터  
 流浪할때 날 업어넘긴 눈물터

그렇다 나는 몇번인가  
 너 豆滿江가를 고즈녁이 거닐며  
 鬱火에 타는 가슴을 헤치고 아우성칠 때  
 오뇌에 풀린 눈을 감고 沈默에 잠겼을 때  
 별이 네등에 내려 소곤거리면  
 너는 微風을 내게 보내여 그 무슨 消息을 傳하였느니라.

六? 큰 凶年에 餓飢가 길가에 어즈러이 쓸어져  
 移住民이 셋섬으로 낮과 호미 그리고 쪽박을 들고

밤새 숨어서 건널때  
 그리고 가엾은 屍體 물거품에 떠돌때  
 너 얼마나 嗚咽하였느냐?  
 庚戌 쓸쓸한 八月바람에  
 옛 섬돌에 피눈물 뿌린 뒤  
 거룩한 뜻을 품고 떠난 愛國志士들을  
 네 목을 축이어 업어건널때  
 너는 정녕 울었으리라

악착한 놈들은 야수처럼 덤비며  
 朝鮮서 東北에로 쫓아와  
 네 가슴팍 두세군데  
 무쇠기둥을 박을때  
 너 오직 아팠느냐?

또 유달리 잊지 못할 피의 傷處  
 내 홀누이 의탁할 곳 없어서  
 울머블며 친척을 찾아갈제  
 세살난 어린애 업은채  
 성에강에 빠져죽은 설음  
 너를 나물하라마는  
 왜 너를 보면 가슴이 뭉클하는구나

그리고 나의 홀아버지 살길을 열려고  
 仙境臺上에 올라 약을 캐다가  
 洞窟에서 병든채  
 마즈막 찬물결 건너서  
 아우집에서 세상똥 슬픔  
 너의 탓이 있으라마는

너를 보면 눈시울이 젖는구나!

누구나 겪은 고요이리라

별이 총총한 그믐밤

가난뱅이 密輸꾼들

아낙네

늙은이

젊은이

참아 죽지 못하여

禁制品 이고 지고 끌고서

너의 등에서 미끄러져

하염없이 고기배에 장사지낸 자

그 몇百 몇千이런가?

隔江이千里라하건만

江 건너 문앞다니듯 넘나들제

고木舟를 건너면

監視所 巡査눈은

울폐미처럼 구울고

칼은 꿈무니에 번쩍이어

머리칼이 서로 몸서리쳤거니

이윽코 稅關에 이르면

稅官吏 이리떼 덩벼드듯 몰려와

이놈

저년

욕질매질하여도

소인양 꿀켜참고

너 悠悠한 물결을 보며 묵하였구나!

그렇게 너 豆滿江은  
 亡命客을 사귀었고  
 가난뱅이를 친하였다.

豆滿江 너는  
 투쟁의 강  
 親和의 강  
 千年前 너의 두 겨드랑이에  
 낫설은 겨레와 겨레도 정답게 살아왔고  
 그리고 거친 한 世紀동안이나  
 老爺嶺을 東西에 屏風둘러  
 푸른 소매와 흰소매가 서로 읊하였다.

아! 高麗와 女眞의 恩讐도  
 너의 물결에 살아졌고  
 《銘安》의 억누름과 《土門》의 말썽도  
 너의 물결에 살아졌다.

百山 아래 黑水 끼고 사는 二百萬 조선겨레도  
 너의 등에 업히워 건넌뒤  
 손꼽아 너의 오리지날을 기다렸나니  
 너의 時華 萬年是 瞬間이나  
 人間百年은 許久도 하였다.  
 그러나 참고 살았나니  
 굳게 싸웠나니

歲月은 물결따라 흘러서  
 八一五歷史의 名節맞이  
 海外에서 날뛰는 英雄들이  
 靑山을 달리는 범같이

祖國三千里를 向하여 의젓하게 凱旋할때  
 너 豆滿江은  
 등실등실 춤을 추며  
 그들을 업어건네었구나!

海蘭江 너도 달려라  
 부얼하통河도 습하라  
 그리고 알하河 혼春河마저 습하여 흐르라  
 오오! 豆滿江아  
 이제 너는  
 勝利의 江으로  
 平和의 江으로 盛裝하고  
 太陽이 첫웃음 퍼는 너의 큰 世界를 보아라  
 여기는 龍峴河  
 銅羅 우는 西水羅도 함참이다  
 어서 東海에 들어  
 永遠히 흘러흘러서  
 黃塵 날리는 天涯를 씻어라  
 〈「北斗星」〉<sup>1)</sup>

### 15. 帽兒山

이 땅 젊은 生命을 기르는  
 海蘭江과 부얼하통河는  
 너 모얼산(帽兒山) 創世記의 佳緣이고

1) 이 작품은 1947에 출판한 시집 〈北斗星〉에 수록되었는데, 대략 1945년에 지은 것으로 추단된다. 이 시는 후에 〈도문강〉이란 詩名으로 改作되어 1980년 4월에 낸 〈리옥 시선집〉에 실렸다.

이곳 각색 살림을 담은  
 용드레村<sup>2)</sup>과 야——니지강<sup>3)</sup>은  
 너 모얼산 지켜온 적은 花園이다.

億萬呼吸이 깃드린 大地의 情熱을 안고도  
 푸른 하늘을 이고 默默히 앉았으니  
 너 모얼산은 偉大한 古人같기도 하다

네 머리우에 해와 달이 흘러흘러  
 쌓은 情怒가 터지는 날은  
 自由의 깃발이 날리리니

우리가 豆滿江 건너서  
 처음 본 너 모얼산은 푸르려야 할텐데  
 百年을 기다리노?  
 千年을 기다리노?

새벽 물결이 뛰거나  
 떼구름이 뛰거나  
 너 모얼산은 안개만 실어 올리누나

척촉꽃이 피거나  
 白雪이 덮이거나  
 너 모얼산은 꿈만 꾸느냐

오!  
 그러나 모얼산아  
 너는 여태 굴한 일 없어

2) 룡정의 옛 지명.

3) 煙集崗, 즉 연길의 옛 지명.

우리의 본보기 되었거니

나는 山에 올라  
 짐짓 <모세>가 되고  
 <마호멧트>가 되어  
 그의 啓示도 깨었고

이제 山에 내려  
 못사람 속에서 소리쳐 불러  
 너 山을림 듣는다  
 너 山을림을 —

<1943년 지음. 「北斗星」에 수록><sup>4)</sup>

#### 16. 月夜梵鍾

水月菴종소리  
 무슨 法音 아뢰고저  
 萬籟를 떠났건만  
 새삼답게 설레는가  
 별조르는 하늘에  
 저달은 어디 갈가?  
 눈감으니 바다로세  
 노를 저으면 나도 가리

4) 1980년 4월에 낸 <리욱시선집>에서는 시 <모아산>을 1936년에 지은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일부 添削을 하였다.

### 17. 샘

샘  
세찬 샘  
《매》를 타고 알리는 샘  
좁은 길에 켜 걸음  
가람따라 우성진 《마-쉬》  
꽃바다의 단꿈인저  
  
이 江山의 젊은이들  
《새 삶》모은 샘터에서  
님의 님이 찾으리다

### 18. 鏡泊湖

湖口가 喇叭처럼 띄어서  
뽕얀 안개를 먹음고  
빨간 놀을 따하오  
  
丘陵뒤 密林에는  
千年傳說이 물드렸고  
老黑山 푸른 이끼에  
林布素將軍님이 스미었소  
松乙嶺 마루에  
鈴蘭이 곱고  
張家鄉 섬과 섬에  
두루미 날고  
푸른 물낫에  
銀鱗은 뛰어도

大廟嶺 허리에는  
부처 꿈이 깊소

三靈屯王陵에  
달빛도 淒涼한데  
眞珠砂 알알에  
눈물이 아롱지오

四季通 오르나리는 배는  
오늘도 말없이 금거울 찾건만  
老夫의 孤魂은 黑珍珠에 숨은채  
半百尺 弔水樓에  
낮낮이 玉碎되오

### 19. 浦口의 봄 아침

멀리 분홍빛 바다에 白孔雀이 나래를 펴니  
돌우어 벤 버개우엔 서른 꿈이 바수여진다.

○

흰달이 어린 덧문을 집어뚫던 어린아이——  
그 빨간 입술에 새 神話홀렸단다.

○

보라빛 치마끝에는 참새주둥이 봄을 나꾸고  
먼 뜰엔 푸른 옷 갈아입는 소리 스미다.

○

푸른하늘 저편엔 여름구름이 날려오고  
傳說을 담은 海峽엔 보얀안개 서리우다.

○

江南에 동백꽃 피었다는 消息만 듣기면

설레는 내 가슴속에는 까무러진 향수가 꼬리친다.

〈1940. 5. 1. 「滿鮮日報」〉

## 20. 公園

내 한나절 깃을 펴고 날수있는  
아늑-한 하늘  
마음은 별조으는 湖水마냥 靜逸해지는구나  
거리의 소음이 까라안고  
간밤 — 노다지꿈도 바사진다  
只今 困憊한 내 生命은  
아침이슬에 젖은 함박꽃처럼 피어난다.  
호박씨까는 《꾸냥》<sup>5)</sup>도  
胡弓타는 女人도  
시그러운 《췌치》이나  
長安의 기생충도  
平安道 愁心歌도  
어울리지 않는 <리즘>이다.  
물몽오리에 풍겨져 바람결에 날아서  
無我의 世界로만 자꾸 가고 싶은  
내 꾸며논 한조각 하늘이다

— 4월 15일 於延吉公園 —

〈1940. 5. 1. 「滿鮮日報」〉

## 21. 血痕에 핀 꽃

北天에 오로라 드리우면

---

5) 중국말로 아가씨·처녀라는 뜻.

싱싱한 曠野를 헤치며  
 讒語하던 미친 벗이 있었다.

애꿎이 日月을 등지고  
 想華에 사는동안  
 피는 말라 化石된 벗이 있었다.

壁우에 苦憫을 손톱으로 오려  
 歲月을 쫓던  
 落齒한 늙은 벗이 있었다.

몇번 쇠그물을 튀켜나  
 땅위 아래에서 싸우던  
 九死一生의 精悍한 벗이 있었다.

그는 기빨이었고  
 그는 祭典이었고  
 그는 표범이었다.

때는 悔恨의 影子를 감추고  
 歷史는 位置를 바꾸었다.  
 잃어진 生理를 얻어

빼앗긴 青春을 찾아  
 人生위 大河에 나리거니  
 人間의 密林에 들거니

오! 기다리던 오늘——  
 오늘은 武裝하고 왔다.  
 行軍은 繼續된다.  
 우리는 이꼴대로 從軍해도 좋다.

마지막 戰爭은 분홍장미 고개너메다  
 돌아보니 온길은 바람불어 六十里  
 이적도 갈길은 비나려 三十里남았나니  
 옛花壇에 어서나가 씨를 뿌리자  
 그리고 봄을 불러 꽃을 피우리라  
 꽃을 피우리라.

〈『颶風』<sup>6)</sup>〉

## 22. 五月의 붉은 맘씨

— 누나가 죽든 가을의 추억

초록치마에  
 감사댕기처럼 진한 五月의 붉은맘씨  
 五月은  
 죽은 누나를 불러도  
 아니오는 누나는  
 옛동우리에 제비를 보내었구나!  
 나는 울어  
 丹楓이 붉었다.  
 누나가 죽던 무렵  
 누렇게 익은 벼 조박이  
 小作人의 눈물속에 젖던 가을  
 아버지는 牛車를 몰고가

6) 1940년에 지음. 1947년 3월 延吉市 한글 연구회에서 펴낸 시집 《颶風》에 수록. 1947년 출판한 시집 《北斗星》에서는 詩名을 〈새花壇〉으로, 1980년에 내놓은 《리옥시선집》에서는 〈새花壇〉으로 달고 改作하였다. 이 改作에서는 原詩 〈血痕에 핀 꽃〉 중의 제3련 「壁우에 苔潤을 손톱으로 오려/歲月을 쫓던/落齒한 늙은 벗이 있었다」가 생략되고 있다.

崔부자집 낮가리만 가리던날  
 병석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누나  
 《그리다 죽으면 어찌겠소》하여  
 어머니의 머리를 돌리게 하든 가을  
 이웃 꽃분이 갖다준 송편을 받아들고  
 《아버지가 오면 뵈이고 먹겠소》하여  
 나도 눈자욱이 돌던 가을  
 어머니는 목메여  
 죽기는, 오늘은 약을 사온다.  
 안죽는다 안죽는다 타일렀건만  
 의심하는 눈을 맥없이 감든누나  
 아버지 오기전 그만 죽었거니.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여  
 뺏기고 밟히던 그 가을  
 한가웠날 사흘 앞두고  
 그만 누나는 죽어  
 그 가을 가난이 죽었길래  
 가을은 와도 돌아와도  
 그 슬픈 가을은 아니건만  
 오늘 당해 유달리  
 나는 초록치마에  
 갑사땡기처럼 진한  
 5월의 붉은 맘씨를 노래한다.

〈『北斗星』<sup>7)</sup>〉

7) 1945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1947년에 출판된 시집 『북두성』에 수록. 1980년에 펴낸 『리옥시선집』에서는 이 시를 많이 다듬어 실었다.

## 23. 碑文

우러러 보면  
 머리우에는  
 높은 하늘 별이 輝煌하고  
 굽어보면  
 발아래는  
 넓은 땅 — 꽃이 爛漫하여.  
 그 사이에  
 내 살어 아름다움이여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지니지 못한 설음은  
 나의 靑春과 함께 半世紀를 묻었거니  
 피  
 새  
 물  
 짐승  
 돌  
 나무  
 그것마저 ·  
 가난한 百姓과 가난한 詩人의 재산은 아니었다.  
 그러나  
 진정 오늘에야  
 우리는 별을 따서 창에 돋혔고  
 꽃을 꺾어 상에 올렸나니  
 이제 나는 세상의 온갖 문을 안고  
 노래만 엮어  
 나의 노래속에 敵을 죽이고

나의 노래속에 사랑을 살리고  
 이렇게만 살어  
 이렇게도 즐거워  
 어느 歲月 年輪에서  
 설마, 나의 呼吸이 끊을지라도  
 그 노래는  
 못사람 心臟에 흐르리니  
 나는 永遠히  
 하늘아래 땅위에  
 적은—— 碑文을 새겨  
 나의 고운 言語로 새겨  
 푸른 별과 더부러 기리 빛나고  
 붉은 꽃과 더부러 기리 향그러우리  
 〈『北斗星』〉

#### 24. 北斗星

白熊이 우는  
 北方 하늘에  
 耿耿한 일곱 星辰  
 무연한 港口에 기발을 저으며 저으며  
 슬픈 季節——  
 이 거리와 저—— 먼 曠野에  
 ——不滅의 빛을 드리우다.  
  
 어둠의 홍수가 氾濫하는  
 宇宙의 한가운데 홀로선 나도  
 한개의 작은 별이런가

네 이름 부르노니

魁<sup>8)</sup>

搖光아 대답하여라

그윽히 피여오르는 紫煙속에

天文이 움직이다.

神話가 바서지다.

보아 千年

생각해 萬年

즐기줄기 흐른 꿈은

지금 내 맘속에 장미원을 이룩하고

구름을 밟고 기리기 나간 뒤

銀河를 지고 달도 기울어

오오, 밤은 象牙처럼 고요한데

우러러 斗柄을 재촉해

亞細亞山脈넘에서

이 江山 새벽을 소리쳐 일으키다.

〈『北斗星』<sup>9)</sup>

## 25. 사랑하는 거리

나는 이 거리의 群像을 사랑한다.

精神을 사랑한다.

내 青春을 묻은 標石우에

꿈이 무지개인양 恍惚하면

8) 북두칠성 중의 별 이름.

9) 1945년 8월작. 『리욱시선집』에 이 시를 실을 때 몇 구절 첨삭을 하였음.

할아버지 무덤을 빛은 鄉土에는  
별이 등불처럼 찬란한 까닭이다.

도란대는 사람들의 潮水가 넘치는  
생의 밀림——의욕의 푸른섬!  
立體, 立體, 立替  
如法和 樂慾과 光華속에서  
物體는 오돌진 이데—를 따라 전진한다.

無數한 線, 壯麗한 面…  
三角, 타원, 圓椎, 球體와 組織과 組織은  
젊은 工匠이 製造한 象形文字!  
(精密한 化石의 알파벳트)

산 造化 날낸 變態!  
빛과 빛남, 記號와 信號, 呼吸과 運動은  
二十世紀가 創造한 쇠와 가라스의 感覺!  
(偉大한 物質의 文章)

오오, 내 사랑하는 이거리 이거리우에는  
흰구름이 오가고 노란 달이 흘렀으나  
이제 풀려서 뛰쳐 일어난 이거리 이거리는  
머리에 새 투구를 쓰고  
손에는 새 방패를 들었다.  
<『北斗星』<sup>10)</sup>

10) 1945년 8월 지음. 『리옥시선집』에는 <일어서는 거리>로 改題하고 약간의 수정을 가 하였음.

## 26. 驛馬車

한자리에

두 거리의 體溫이 사귀여

凍土우에도 和氣돈다.

적은 초롱은

밤倫理의 異端者로서

忠實한 말께 좋은 伴侶!

그러나 말방울 방울소리없이 섭섭하다.

이 밤 또 한 國境 더넘어

도로이카를 달리고 싶은 마음!

馬車夫의 검은 다부산즈 자락에

만만디를 느낀 내 가슴에

밤길 咫尺도 아득히 멀어진다.

털외투의 어수선한 그림자에 찢긴 마음은

채찍이 떨어질때마다

슬픈 고개를 들어 뜻을 모르는 말과 더부러 굳세여지나니

낯은 城廓을 벗어나

바로 별 성긴 蒼穹을 쳐다보는 마음!

延吉驛은 멀구나

포푸라 사이 鈴蘭燈도 밝은데

白雪의 曠野에는

푸른 달이 흘러 흘러!

오오, 先驅者의 넓이

저렇듯 아련한가?

驛馬車는

오늘도 밤과 낮으로 걸을줄 모르는 구름다리에서  
이 거리 기쁜 消息 보내고 맞으리  
구불구불 흰히 띄인 南견 新作路로 달린다.  
힘차게 달린다.

〈1945년 8월 작. 『北斗星』에 수록〉

### 27. 臥龍山

臥龍山色從雲遠  
豆滿江聲隨風高

〈和龍縣 江長洞書堂에서 13세 때에 지었다 함.〉

### 28. 暮春

萬里江山春慾暮  
琴書相促? 蘭開  
苦非紅雨三春去  
那得綠波一笛來

〈1924년 辛酉詩社 詩會에서 읊었다고 전함.〉

### 29. 暮春

西山紅鏡般勤態  
返照東天石塔何  
風景如隨春暮盡  
斜陽那肯映梅花

〈『문학과 예술』 1987. 9~10〉

### 30. 登仙境臺

(一)

名山去俗情, 好鳥接賓鳴.  
雨後仙臺月, 風流任我評.

(二)

絕壁青天柱, 斷霞大壑崇  
寒泉聲翠落, 古木影斜?

(三)

雙岳雲端出, 卷松月下鳴,  
洞天村叟上, 石室野竟行.

(四)

岩嶂長城陣, 松濤奔雷聲  
山因雲臥秀, 湖爲客游名

〈1936년 가을 『문학과 예술』 1987년 9~10〉

### 31. 夕陽

斜陽紅鏡愜慙慙,  
返照東天倚戀心.  
夕靄垂山千貫玉,  
暮暉落水一場金.

〈1940년 가을 『문학과 예술』, 1987년 9~10〉

### 32. 漁翁

江岸柳枝擊小船,

簑衣自酌酒中仙.

水光如月心如錦,

翁放漁歌且弄絃.

〈1943년 여름, 『문학과 예술』, 1987년 9~10〉